

## 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 지지와 청소년의 자살충동간 인과관계 분석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김현주\*, 노자은\*\*

청소년 자살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KYPS)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자살충동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성별차이를 분석하였다. 두 가지 중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년도(t-1)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 자살충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다음 해(t)의 같은 요인의 수준이 모두 높았다. 둘째, 각 지지 요인과 자살충동간 교차경로에서 유의한 성별차이가 발견된 모형은 부모지지와 친구지지 모형이었다. 두 모형 모두 중학교 3학년의 부모(친구)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1학년의 자살충동이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자살충동의 내적 역동이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지니므로 주변인과의 관계, 지지 등과 같은 개인 외적 요인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약한 인과관계를 보였던 교사, 지역사회 지지를 강화시켜 청소년의 자살충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핵심단어 :** 청소년 자살충동,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지역사회 지지,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 I. 서론

2008년에 통계청이 실시한 15-19세 청소년의 자살 충동 관련 조사 결과 이들 전체의 10.4%가 자살충동 경험을 보고하였다(통계청, 2008). 청소년 인구증가율이 1980년 이후에 -0.5%로 처음 감소상태에 접어든 이후 2010년 -2.22%, 2020년까지 -2.39%의 수준을 보이며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아동·청소년백서, 2008)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난다.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전공 교수 | kimhj@cau.ac.kr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청소년전공 박사수료 | letsjoin@daum.net

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생각율은 2005년 22.6%로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로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자살시도율도 마찬가지로 2005년 4.7%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성별로 수치를 비교했을 때 매 해 자살생각율 및 시도율 모두 여자청소년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9년에는 남자 청소년이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인 것과는 반대로 여자청소년은 조금씩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질병관리본부, 2009). 이처럼 남녀 청소년 전체의 자살생각율 및 시도율이 연도별 감소경향을 보인다 하더라도 연령의 증가에 따른 변화경향 및 성별 변화경향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령의 증가, 즉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른 자살충동의 변화와 자살 관련 요인들의 관계 양상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필요하고, 특히 최근 증가 경향을 보인 여자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율 및 시도율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서동우, 2001).

자살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살의 특성상 위험요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강구하는데 대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많은 자살관련 연구들에서 언급된 자살의 위험요인은 자살과 관련된 성, 연령, 인종, 결혼상태, 정신과 입원이나 자살시도 경험 등의 변경 불가능한 요인과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신의학적 문제, 자살수단의 접근 용이성, 사회적 고립, 사회비난의 두려움, 위기 극복 기술, 자살공포 등의 잠재적으로 변경 가능한 요인으로 구분되고, 자살예방 관련 연구들은 후자의 요인들에 관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곽경필·송창진·사공정규·이광현, 2004; Brown and Vinokur, 2003; Heisel, Flett and Hewitt 2003; 엄태완, 2008, 재인용).

그러나 자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요인에 대한 단편적 영향만을 확인하는 것은 실천적 개입전략 마련에 있어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김순규, 2008). 따라서 스트레스나 우울 등과 같은 개인 내적인 측면(이경진, 2003; 이숙, 2003; 김교현, 2004; 이경진·조성호, 2004; 박은옥, 2008)과 같이 자살과 관련된 개인적 차원의 위험요인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영역의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자살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허용적인 태도, 가부장적 가정환경, 대입경쟁과 관련된 학업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들이 보고되었다(김용분·정영조, 2003; 최원기, 2004; 문경숙, 2006; 김순규, 2008). 이와 더불어 특히 청소년에게는 중요한 타인의 지지가 보호요인으로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외적 측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청소년

자살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자살관련 연구가 보완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측정시기의 측면이다.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 단일 시점에 측정된 횡단 자료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자살 충동은 발생 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홍나미·정영순, 1999; 문경숙, 2006; 박병금, 2006; 문경숙·임규혁, 2007). 이에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살충동 변화경향을 파악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외적 요인들의 경향 또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기존 연구에서 제안되었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자살충동경향을 반복 측정함으로써 단기횡단적으로 예측된 요인들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요인간 상호 관계 분석을 통해 인과적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살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함과 동시에 적절한 예방적 개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 지지와 자살충동 간 인과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 자살의 특성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자살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해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살행위란 '어느 정도의 자살의도를 가지고 그 동기를 인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한 상해'라고 하였다. 한국청소년개발원(2002)은 청소년 자살을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한 이들의 현실도피 방법'으로 정의하였고, 이 외에도 '가슴깊이 감추어둔 호소, 즉 도움을 청하는 극단적 표현(이경진·조성호, 2004)', '성인과 같은 합리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움에 처할 경우 가능한 한 쉽고 빠르게 탈출하고자 하는 시도(이종길, 2009)'등으로 정의된다.

한편 자살생각 또는 자살충동은 실제 자살행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박광배·신민섭, 1991; Brent, Kalas and Edelbrock, 1986; Pfeffer, Conte and Plutchik, 1993). 자살생각이나 자살충동은 자살시도 행동의 중요한 예측지표로

이주 가벼운 증상을 보이더라도 이후 자살시도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일차적으로 자살생각 또는 충동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Beck, Kovacs and Weissman, 1979; Fremouw, De Perczel and Ellis, 1990; 고재홍·윤경란, 2007, 재인용). 자살예방 상담전문가들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 신호는 ‘죽고 싶다’, 또는 ‘내가 죽는다고 누가 신경 쓰겠어’라는 말이라고 설명한다(한국자살예방협회 보도자료, 2010). 지난 수년 간 자살이 청소년 사망 요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의 청소년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주는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청소년 자살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질병관리본부(2009)는 청소년기의 높은 스트레스 및 우울감은 자살충동이나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주변인의 관심과 지지가 자살시도라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므로, 가정 및 학교, 사회가 이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지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였다.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정신·심리학적 모델과 사회학적 모델이 있다. 정신·심리학적 모델에서는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의 특성상 자살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개인 내적 요인들을 강조한다(Baumeister, 1990). 이에 비해 사회학적 모델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문제,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환경, 대중문화로의 과도한 노출 등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소년 자살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 사회적 요구가 자신을 향한 압력 또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이로 인해 일시적인 감정의 불균형 또는 부적응을 겪으면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때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하상훈,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들이 개인적 차원의 요인들을 주로 다루었던 것과 차별화하여 청소년기에 중요한 타인으로 고려되는 부모, 친구, 교사, 지역 사회 등의 맥락적 요인이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학적 모델이 강조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한국 청소년들이 다른 국가의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우울감 수준이 높다는 점, 대입경쟁으로 인한 공부압력과 가족 내 갈등이 많다는 사실(최원기, 2004; 문경숙, 2006)과 지역사회 성인으로부터의 감시를 낮게 인식하는 점(윤우석, 2010)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심한 꾸중, 외모에 대한 고민, 이성친구와의 문제, 따돌림은 청소년기 자살의 중요한 맥락적 동기가 된다. 즉, 청소년 자살은

그 시기만의 구별되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자살 요인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개인 내적 요인 측면만이 강조된 탐색에서 벗어나 개인 외적 요인에 대해 탐색하고 그러한 요인이 자살충동 경향 변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2. 자살충동<sup>1)</su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을 자살로 이끄는 주요한 요인들은 사회문화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등으로 구분되며, 개인에 따라 유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이종길, 2009). 청소년 자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 무망감, 스트레스, 자기존중감, 자살 시도경험, 약물중독 등의 개인 내적 요인과 가정, 친구, 학교, 사회, 대중매체 등의 개인 외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개인 내적인 요인들과 자살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김향초, 1993; 이숙, 2003; 김교현, 2004; 이경진·조성호, 2004; 고재홍·윤경란, 2007; 임성택·주동범·이금주, 2010)이 활발히 이루어져 온 반면 이러한 위험요인에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개인 외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요인은 개인 외적 요인으로, 가족 관련 요인, 학교적응 및 사회적 지지 요인과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살충동이 높은 청소년들은 부모의 지지가 부족하거나 가족관계에 불만을 나타낸다.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가정환경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학대, 강압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태도와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를 가장 큰 이유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양육태도에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족, 가족간 불화, 불충분한 돌봄 등의 정서적 학대와 함께 신체적 학대가 포함된다(전영주, 2001; 박경, 2005; 박경, 2007; 김은경·이정숙, 2008; 박현숙·구현영, 2009; 박재산·문재우, 2010; 이민아 외; Adam, Keller and West, 1994; Hollis, 1996; Blum, Harmon and Harris, 1992; Borowsky, Resnick and Ireland, 1999). 가정에서의 신체적·성적 학대는 특히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중독자인 부모는 자녀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는 자녀의 불안, 공포, 감정적 고통과 같은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하게 되고(노혜련·김형태·이

1) 자살생각은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 여부'(박재산·문재우, 2010) 또는 '자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운 경험'(이지연 외, 2005)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한국청소년패널의 자살충동 문항이 가지는 의미와 구분된다.

종익, 2005) 자살행동의 강한 원인으로 일컬어지는 우울이나 절망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진다. 즉 구성원간 애착, 대화, 적절한 감독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가족의 지지적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족 요인은 청소년기 자살충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된다.

둘째, 주된 사회적 맥락으로 작용하는 학교와 관련된 자살충동 요인들로 청소년기 동료와의 어려움과 교사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친구관계와 같은 대인관계 요인 및 학교생활 등의 환경 요인은 청소년 자살에 있어서 대표적인 보호요인 또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전영주·이숙현, 2000; 정혜경·안옥희·김경희, 2003; 박영숙, 2009). 친구지지 못지않게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역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부모, 학업, 교사, 학교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중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와 함께(유안진·한미현, 1996; 한중혜·박성옥·이영환, 1997) 교사의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역량이나 자아효능감과 같은 긍정적 자기 인식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한중혜, 1995; 조은정, 2008). 또한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이나 비행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꼽힌다(조아미·방희정, 2003; 정기원·권량희, 2006). 우채영·김관희(2011)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친구와 교사의 지지가 자살충동 위협요인들의 영향력을 낮춤으로써 자살충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도시화 수준, 사회계층, 사회통합의 정도, 실업률 등의 사회적 요인 또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난다(홍성철·김문두·이상이, 2003; 강은정, 2005; Kieselbach, 1988; Hagquist, 1998). 뒤르케임은 현대사회가 발달할수록 이혼율의 증가, 도덕적 규범의 약화, 종교의 역할 약화, 개인중심사회로의 전환, 핵가족 제도의 확산 등으로 인해 자살율이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높은 인구이동률과 같은 다양한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해체현상은 개인해체와 연결되고, 구성원간 무관심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비행, 범죄, 자살 등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친다(Durkheim, 1987). 이처럼 자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심리적 요인, 즉 우울증, 조울증, 좌절감 등은 집합효율성과 같은 조직의 특성이나 집단 내 인간관계, 즉 사회환경 및 사회관계, 사회 구조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장일순, 2004).

최근 청소년기 자살충동과 관련하여 개인 내적 요인에 대한 탐색을 벗어나 청소년기 인간관계, 청소년 실업률, 경제적 박탈감 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다(우채영·박아청·정현희, 2010; Kieselbach, 1988; Hagquist, 1998; Ayyash-abdo, 2002; Perkins and

Hartless, 2002).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초기의 자살생각이 여러 영역의 사회적 지지라는 보호요인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성별에 따른 자살관련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살에 관한 성별비교가 필요하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를 한다는 연구(Sudak, Ford and Rushforth, 1984)가 있는 반면, 자살생각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Harlow, Newcomb and Bentler, 1986) 또한 있고, 자살생각 및 시도, 성공률을 구분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자살생각 및 시도율을 나타내나 자살 성공률은 남성이 여성의 3-4배 더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원호택·이민규, 1987). 부모-자녀관계나 교사-학생간 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나고 있다(우채영·박아청·정현희, 2010). 따라서 자살충동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적 요인을 가족, 친구, 교사,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성별로 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Korean Youth Panel Survey)이다. 이 조사 자료는 청소년의 직업관, 진로관, 자아관, 여가활동 및 일탈행위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제반 실태를 분석하고자 수집되고 있다. KYPS의 조사대상은 2003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전국(제주도 제외)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에 의해 표본으로 뽑은 3,697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이며, 2008년까지 6년간 반복적으로 추적조사를 하였다. 이 종단적 연구모형은 동일 표본을 세 번 이상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중다 전망적 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충동 문항이 포함되지 않은 1차년도 자료와,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해 교사 관련 문항의 의미가 이전과 달라지는 6차년도 자료를 제외하고 2차년도 자료부터 5차년도 자료까지 분석에 사용하였다.

변인은 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에 관한 다음의 패널조사문항들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잠재변인 및 하위 문항

잠재변인		하 위 문 항
부모지지	애착	-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대화	-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감독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친구지지	우정	-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공감	-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교사지지	신뢰	-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애착	-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존경	-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지역사회지지	신뢰	-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믿고 지내는 편이다 -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나는 동네 어른들께 말씀을 드릴 것이다
	애착	-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자주 만나는 편이다 - 우리 동네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동네 어른들이 나를 꾸짖을 것이다
	감독	- 우리 동네에서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동네 사람들이 말리거나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다
자살충동		-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시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사용하였다.<sup>2)</sup> 자기회귀교차지연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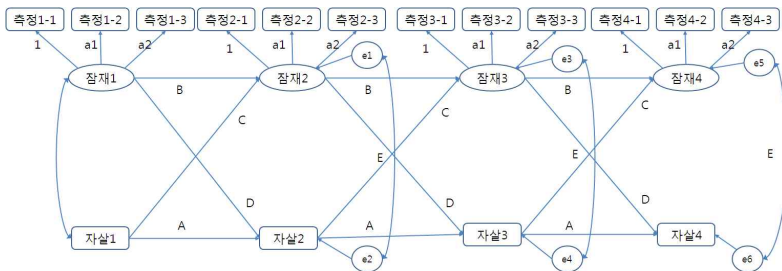
2) 먼저 초기값인 중학교 3학년 데이터로 개인내적요인(자기통제, 자아존중감, 불안우울)과 사회적지지 요인(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자기통제 요인의 하위문항은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 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등의 6문항으로, 자아존중감 요인은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12문항으로, 불안우울 요인은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인내적요인을 투입했을 때 자살충동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F=0.714, p>0.05) 사회적지지 요인을 함께 투입했을 때 두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9.159, p<0.01).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개인요인을 제외한 사회적지지와 자살충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형은 변수간의 비재귀적 관계를 종단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모형은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종단적이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고,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그림 1>의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동분산 동일성 검증을 위해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지역지지와 자살충동간의 관계에 대하여 각각 7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모형1은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이고, 모형2는 측정동일성 검증으로 남녀 집단 간 각 시점에서 측정한 개념이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변수의 요인 적재치(a1, a2)를 동일하게 설정한 모형이다. 모형3-6은 각 잠재변수의 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경로동일성 검증으로, 시점 t-1의 잠재변수에서 시점 t의 잠재변수로의 경로와 시점 t의 잠재변수가 시점 t+1의 잠재변수로의 경로(A, B, C, D)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모형 7은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으로 각 시점에서 설정된 오차 간의 공분산(E)을 고정하였다. 7개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순차적 비교가 필요한데, 각 모형은 서로 내재된(nested) 관계이므로 모형 비교시  $\chi^2$  차이 검증( $\Delta\chi^2$  test)과 함께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TLI와 RMSEA로 검증하였다. 동일화 제약을 가하면서 자유도의 증가에 비해  $\chi^2$ 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면서 TLI와 RMSEA가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chi^2$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므로  $\chi^2$  차이 검증에서  $\alpha=.001$ 의 유의수준을 적용하였다. 최종모형을 도출한 후 남녀집단간 비교를 위해 집단간 경로계수를 비교하였고,  $\chi^2$  차이 검증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최대한 확인하기 위해  $\alpha=.05$ 의 유의수준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AMOS 7.0을 이용하였고, 결측치를 제외한 후 ML(maximum likelihood)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각 잠재변수와 자살충동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표 2> 잠재요인별 측정변수의 신뢰도 및 요인부하량

		중3		고1		고2		고3	
		$\alpha$	M (SD)	$\alpha$	M (SD)	$\alpha$	M (SD)	$\alpha$	M (SD)
부모	애착	0.812	10.42 (2.25)	0.789	10.56 (2.11)	0.795	10.67 (2.16)	0.805	10.78 (2.20)
	의사소통	0.830	10.12 (2.56)	0.842	10.17 (2.49)	0.854	10.18 (2.56)	0.868	10.42 (2.62)
	감독	0.856	13.64 (3.23)	0.872	13.54 (3.25)	0.876	13.76 (3.19)	0.893	13.91 (3.30)
친구	우정	0.872	8.77 (1.19)	0.866	8.95 (1.20)	0.870	8.91 (1.18)	0.891	8.96 (1.20)
	공감	0.680	7.91 (1.59)	0.666	8.07 (1.53)	0.685	8.04 (1.53)	0.681	8.19 (1.52)
교사		0.713	7.87 (2.40)	0.744	7.79 (2.46)	0.783	7.92 (2.63)	0.797	7.81 (2.67)
지역사회	애착	0.845	5.39 (1.84)	0.838	5.21 (1.81)	0.841	5.11 (1.84)	0.873	4.98 (1.90)
	감독	0.736	6.82 (2.00)	0.789	6.64 (1.99)	0.766	6.40 (1.97)	0.815	5.70 (1.70)
	신뢰	0.597	6.07 (1.77)	0.486	5.97 (1.67)	0.493	5.81 (2.64)	0.506	6.14 (2.01)
자살충동		0.715	2.23 (1.12)		2.18 (1.10)		2.11 (1.05)		2.05 (1.01)

#### IV. 연구결과

#####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확인요인분석

개별 잠재요인의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각 잠재요인들의 내적일관성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확인한 결과와 잠재요인별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시점별 잠재요인들의 측정변수들은 모두 .70 이상으로 수용할 만한 내적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잠재요인별 확인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 RMR은 .05 이하의 값을, GFI, TLI 모두 .90 이상의 값을 나타나 각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높았으며, 요인부하량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으로부터 도출된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자살충동 평균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부모지지 관련 변인의

평균은 모두 증가하였다. 친구지지의 평균은 중3에서 고1(시점 1→시점 2)로 가면서 약간 증가하였다가 고2(시점 3)때 감소, 고3(시점 4)때 다시 증가하였고, 교사지지는 이와 반대로 감소 → 증가 →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지지 관련 변인은 모두 감소의 경향을 보였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측정변인들 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가운데 부모지지와 친구지지, 지역사회 지지 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예측대로 자살충동과 부모지지 변인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반면 고1(시점 2) 이후의 자살충동은 친구지지 및 대부분의 지역사회 지지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시점별 자살충동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가운데 점차 상관정도가 낮아졌다.

## 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

### 1) 각각의 지지와 자살충동 모형의 적합도 비교

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 지지와 자살충동 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부모 지지와 자살충동간 인과성 검증<sup>3)</sup>을 결과를 살펴보면,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모형1과 2의  $\chi^2$ 차이검증 결과 남녀 모두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남:  $\Delta\chi^2(df)=7.100(6)$ ,  $p=0.312$ , 여:  $\Delta\chi^2(df)=0.494(6)$ ,  $p=0.998$ ), TLI와 RMSEA가 나빠지지 않아 측정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자살충동의 자기회귀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3을 모형2와 비교한 결과  $\chi^2$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남:  $\chi^2(df)=3.087(2)$ ,  $p=0.214$ , 여:  $\Delta\chi^2(df)=1.085(2)$ ,  $p=0.581$ ) TLI와 RMSEA도 나빠지지 않았다. 부모지지의 자기회귀계수의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4 또한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나타내었다(남:  $\Delta\chi^2(df)=9.009(2)$ ,  $p=0.011$ , 여:  $\Delta\chi^2(df)=10.678(2)$ ,  $p=0.005$ ). 즉 부모지지와 자살충동의 작용이 모두 매년 지속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매 시점의 교차지연 효과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5와 모형6을 이전 모형과 비교한 결과,  $\chi^2$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면서 적합도 지수 또한 이전 모델의 적합도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다(모형5-남:  $\Delta\chi^2(df)=0.626(2)$ ,  $p=0.731$ , 여:  $\Delta\chi^2(df)=1.523(2)$ ,  $p=0.467$ ; 모형6-남:  $\Delta\chi^2(df)=4.648(2)$ ,  $p=0.098$ , 여:  $\Delta\chi^2(df)=3.602(2)$ ,  $p=0.165$ ).

3) 전체모형 :  $\chi^2(97, N=1,784)=1500.736$ ,  $p<0.001$ , TLI=0.875, RMSEA=0.090

&lt;표 3-1&gt; 각 자살충동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비교

부모지지		남				여			
		$\chi^2(df)$	TLI	RMSEA	$\Delta\chi^2$	$\chi^2(df)$	TLI	RMSEA	$\Delta\chi^2$
모형1	기저 모형	588.904(83)	0.907	0.086		930.282(83)	0.849	0.103	
	a1	596.004(89)	0.907	0.083	7.100	930.776(89)	0.860	0.099	0.494
모형2	a2								
모형3	A	599.091(91)	0.907	0.082	3.087	931.861(91)	0.863	0.098	1.085
모형4	B	608.190(93)	0.906	0.082	9.099	942.539(93)	0.865	0.097	10.678
모형5	C	608.816(95)	.906	0.081	0.626	944.062(95)	0.868	0.096	1.523
모형6	D	613.464(97)	0.905	0.081	4.648	947.644(97)	0.870	0.096	3.602
모형7	E	613.826(99)	0.906	0.080	0.362	948.185(99)	0.873	0.094	0.541

친구지지		남				여			
		$\chi^2(df)$	TLI	RMSEA	$\Delta\chi^2$	$\chi^2(df)$	TLI	RMSEA	$\Delta\chi^2$
모형1	기저 모형	173.801(36)	0.856	0.068		268.062(36)	0.840	0.082	
	a1	177.037(39)	0.867	0.066	3.236	269.052(39)	0.853	0.078	0.990
모형2	A	178.408(41)	0.874	0.064	1.371	270.695(41)	0.861	0.076	1.643
모형3	B	183.069(43)	0.877	0.063	4.661	280.014(43)	0.863	0.076	9.319
모형4	C	187.212(45)	0.881	0.062	4.143	284.671(45)	0.868	0.074	4.657
모형5	D	190.301(47)	0.885	0.061	3.089	285.015(47)	0.874	0.073	0.344
모형6	E	191.095(49)	0.891	0.059	0.794	288.677(49)	0.878	0.071	3.662

이러한 결과는 부모지지에 대한 자살충동의 교차지연 효과 및 자살충동에 대한 부모지지의 교차지연 효과가 시간이 경과해도 매년 동일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7을 모형6과 비교한 결과 또한  $\chi^2$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TLI와 RMSEA 역시 나빠지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남:  $\Delta\chi^2(df)=0.362(2)$ ,  $p=0.834$ , 여:  $\Delta\chi^2(df)=0.541(2)$ ,  $p=0.763$ ). 따라서 남녀 집단 모두 모형7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남녀 집단 각각 형태 동일성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집단간 부모지지와 자살충동의 상호 인과관계 비교가 가능함을 의미한다<sup>4)</sup>.

친구, 교사, 지역사회 지지와 자살충동의 인과성 검증 역시 위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검증한 결과, 모두 모형7이 형태동일성을 만족시켜 남녀 집단간 상호 인과관계 비교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반적으로 자유도가 적으면서 적합도가 좋은 모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점차적으로 동일성 제약을 가해서 분석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증가하더라도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는 경우 그 모형을 채택한다.

<표 3-2> 각 자살충동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비교

교사지지		남				여			
		$\chi^2(df)$	TLI	RMSEA	$\Delta\chi^2$	$\chi^2(df)$	TLI	RMSEA	$\Delta\chi^2$
모형1	기저	345.762(83)	0.878	0.062		500.222(83)	0.878	0.072	
	모형								
모형2	a1	354.124(89)	0.886	0.060	8.362	508.070(89)	0.886	0.070	7.848
	a2								
모형3	A	357.854(91)	0.887	0.060	3.730	508.459(91)	0.889	0.069	0.389
모형4	B	360.491(93)	0.890	0.059	2.637	510.910(93)	0.891	0.068	2.451
모형5	C	363.234(95)	0.892	0.059	2.743	511.150(95)	0.894	0.068	0.240
모형6	D	366.710(97)	0.893	0.058	3.476	511.996(97)	0.896	0.067	0.846
모형7	E	370.586(99)	0.895	0.058	3.876	513.138(99)	0.898	0.066	1.142

지역지지		남				여			
		$\chi^2(df)$	TLI	RMSEA	$\Delta\chi^2$	$\chi^2(df)$	TLI	RMSEA	$\Delta\chi^2$
모형1	기저	517.066(83)	0.862	0.080		660.602(83)	0.846	0.085	
	모형								
모형2	a1	520.938(89)	0.872	0.077	3.872	666.946(89)	0.894	0.082	6.344
	a2								
모형3	A	525.399(91)	0.874	0.076	4.461	667.418(91)	0.860	0.081	0.472
모형4	B	526.917(93)	0.877	0.075	1.518	671.214(93)	0.862	0.080	3.796
모형5	C	529.626(95)	0.879	0.075	2.709	677.266(95)	0.864	0.080	6.052
모형6	D	529.831(97)	0.882	0.074	0.205	677.501(97)	0.868	0.079	0.235
모형7	E	532.297(99)	0.884	0.073	2.466	680.938(99)	0.870	0.078	3.437

## 2) 각각의 지지와 자살충동 경로의 남녀 집단 비교

남녀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 내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하여 남녀모형 간 비교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모형은 동일하지만 영향력은 남녀 별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각각의 지지원에 의한 경로계수의 차이를 남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 (1) 부모지지와 자살충동 경로의 남녀 집단 비교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부모지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살충동으로 가는 경로에서 남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Delta\chi^2(df)=4.250(1)$ ,  $\Delta TLI=0.000$ ). 남자청소년은 이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고, 여자청소년의 표준화된 계수는  $-0.121(p<0.001)$ 이었다. 즉 여자 청소년 집단이 남자 청소년 집단에 비해 중학교 3학년 때의 부모지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자살충동에 더 강한 부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부모지지가 자살충동을 낮춘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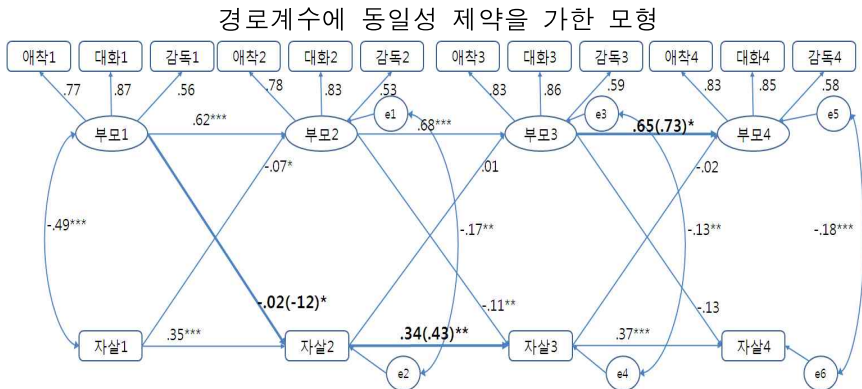
<표 4> 부모지지와 자살충동 모형의 남녀 모수 추정치와 집단간 차이

경로	모수 추정치(표준화 계수)		집단간 차이		
	남	여	$\Delta df$	$\Delta \chi^2$	$\Delta TLI$
부모지지1→자살충동2	-0.011 (-0.019)	-0.072 (-0.121) ***	1	4.250 *	0.000
부모지지1→부모지지2	0.575 (0.619) ***	0.645 (0.675) ***	1	2.255	-0.001
자살충동1→부모지지2	-0.103 (-0.069) *	-0.078 (-0.051)	1	0.134	-0.001
자살충동1→자살충동2	0.335 (0.347) ***	0.407 (0.426) ***	1	2.772	-0.001
부모지지2→자살충동3	-0.062 (-0.105) **	-0.030 (-0.047)	1	1.114	-0.001
부모지지2→부모지지3	0.733 (0.687) ***	0.770 (0.737) ***	1	0.540	-0.001
자살충동2→부모지지3	0.017 (0.010)	-0.068 (-0.040)	1	1.490	-0.001
자살충동2→자살충동3	0.314 (0.342) ***	0.442 (0.431) ***	1	8.693 **	0.000
부모지지3→자살충동4	-0.072 (-0.125) ***	-0.078 (-0.142) ***	1	0.050	-0.001
부모지지3→부모지지4	0.658 (0.648) ***	0.769 (0.727) ***	1	5.448 *	0.000
자살충동3→부모지지4	-0.041 (-0.022)	-0.112 (-0.065) *	1	0.929	-0.001
자살충동3→자살충동4	0.391 (0.377) ***	0.403 (0.447) ***	1	0.075	-0.001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12	30.305 **	-0.007

주: 1) \* p<0.05, \*\* p<0.01, \*\*\* p<0.001

2) 남녀 집단별 모수 추정치는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결과이고,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결과임.

<그림 2> 부모지지와 자살충동의 요인적재치와



주: 1) \* p<0.05, \*\* p<0.01,

2) 나타낸 수치는 남성집단의 표준화된 계수이며, 남녀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경로계수에만 여성 집단 수치를 괄호에 기입.

의미를 지닌다. 이 외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부모지지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살충동 간 경로( $\Delta \chi^2$  (df)=8,693(1),  $\Delta TLI$ =0.000)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부모지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부모지지 간 경로( $\Delta \chi^2$  (df)=5,448(1),

$\Delta TLI=.000$ )에서 남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모두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2) 친구지지와 자살충동 경로의 남녀 집단 비교

남녀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모형비교 결과(표 5),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친구지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살충동으로 가는 경로에서 남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elta\chi^2$  (df)=60.973(1),  $\Delta TLI=.021$ ). 남자청소년의 표준화된 계수는  $-.169$ ( $p<.001$ ), 여자 청소년의 표준화된 계수는  $-.211$ ( $p<.001$ )로, 여자 청소년 집단이 남자 청소년 집단에 비해 이 시기의 친구지지와 자살충동간 더 강한 부적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의 자살충동 경로에서 여자 청소년 집단이 더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남: .298, 여: .386, all  $p<.001$ ,  $\Delta\chi^2$  (df)=3.073(1),  $\Delta TLI=-.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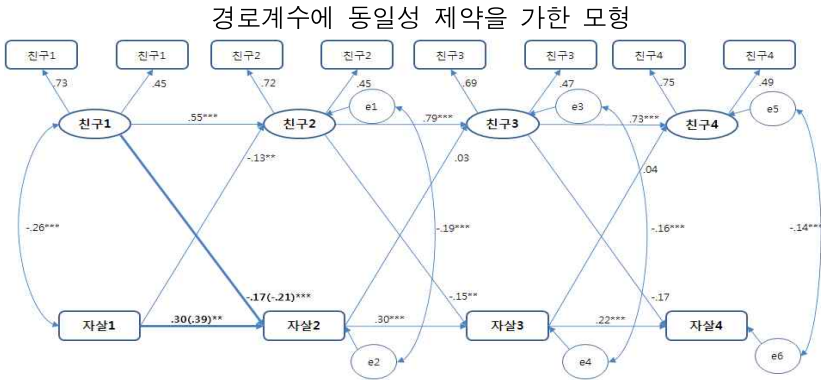
<표 5> 친구지지와 자살충동 모형의 남녀 모수 추정치와 집단간 차이

경로	모수 추정치(표준화 계수)		$\Delta df$	집단간 차이	
	남	여		$\Delta\chi^2$	$\Delta TLI$
친구지지1→자살충동2	-0.244(-0.169) ***	-0.315(-0.211) ***	1	60.973 ***	.0021
친구지지1→친구지지2	0.549(0.551) ***	0.588(0.660) ***	1	0.142	-.0002
자살충동1→친구지지2	-0.084(-0.126) **	-0.081(-0.142) ***	1	0.006	-0.002
자살충동1→자살충동2	0.288(0.298) ***	0.369(0.386) ***	1	3.073 **	-0.001
친구지지2→자살충동3	-0.200(-0.150) **	-0.418(-0.243) ***	1	3.750	-0.001
친구지지2→친구지지3	0.787(0.788) ***	0.976(0.891) ***	1	1.716	-0.001
자살충동2→친구지지3	-0.022(-0.032)	-0.049(-0.076)	1	0.240	-0.002
자살충동2→자살충동3	0.273(0.297) ***	0.349(0.341) ***	1	2.105	-0.001
친구지지3→자살충동4	-0.231(-0.166) ***	-0.384(-0.271) ***	1	2.009	-0.001
친구지지3→친구지지4	0.763(0.732) ***	0.841(0.838) ***	1	0.435	-0.002
자살충동3→친구지지4	0.034(0.043)	0.016(0.026)	1	0.090	-0.002
자살충동3→자살충동4	0.336(0.324) ***	0.311(0.345) ***	1	0.215	-0.002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12	25.736 *	-0.014

주: 1) \*  $p<0.05$ , \*\*  $p<0.01$ , \*\*\*  $p<0.001$

2) 남녀 집단별 모수 추정치는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결과이고,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결과임.

<그림 3> 친구지지와 자살충동의 요인적재치와



주: 1) \* p<0.05, \*\* p<0.01,  
 2) 나타낸 수치는 남성집단의 표준화된 계수이며, 남녀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경로계수에만 여성 집단 수치를 괄호에 기입.

(3) 교사지지와 자살충동 경로의 남녀 집단 비교

교사지지와 자살충동간 존재하는 경로 중 남녀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을 비교한 결과<표 6>, 부모지지와 친구지지와는 달리 교사지지는 자살충동과의 경로에서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살충동으로 가는 경로( $\Delta\chi^2(df)=4.964(1)$ ,  $\Delta TLI=.000$ )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살충동 경로에서 남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일 뿐이었다( $\Delta\chi^2(df)=8.250(1)$ ,  $\Delta TLI=.001$ ).

(4) 지역사회 지지와 자살충동 경로의 남녀 집단 비교

지역사회 지지와 자살충동간 존재하는 경로 중 남녀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경로는 없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자살충동 경로( $\Delta\chi^2(df)=4.919(1)$ ,  $\Delta TLI=.027$ )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의 자살충동 경로( $\Delta\chi^2(df)=8.894(1)$ ,  $\Delta TLI=.003$ )에서 남녀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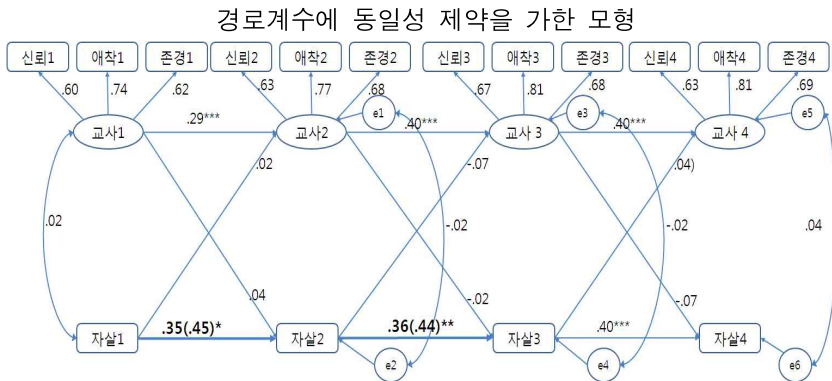
<표 6> 교사지지와 자살충동 모형의 남녀 모수 추정치와 집단간 차이

경로	모수 추정치(표준화 계수)				집단간 차이		
	남		여		$\Delta df$	$\Delta \chi^2$	$\Delta TI$
교사지지1→자살충동2	0.068	(0.038)	0.013	(0.008)	1	0.370	-0.001
교사지지1→교사지지2	0.308	(0.285) ***	0.351	(0.344) ***	1	0.406	-0.001
자살충동1→교사지지2	0.009	(0.015)	-0.038	(-0.065)	1	2.301	0.000
자살충동1→자살충동2	0.339	(0.351) ***	0.432	(0.452) ***	1	4.964 *	0.000
교사지지2→자살충동3	-0.030	(-0.019) **	-0.061	(-0.036)	1	0.154	-0.001
교사지지2→교사지지3	0.419	(0.395) ***	0.447	(0.404) ***	1	0.197	-0.001
자살충동2→교사지지3	-0.043	(-0.067)	-0.021	(-0.032)	1	0.427	-0.001
자살충동2→자살충동3	0.332	(0.361) ***	0.453	(0.442) ***	1	8.250 **	0.001
교사지지3→자살충동4	-0.102	(-0.068)	-0.016	(-0.012)	1	1.540	-0.001
교사지지3→교사지지4	0.391	(0.403) ***	0.384	(0.354) ***	1	0.014	-0.001
자살충동3→교사지지4	0.003	(0.004)	-0.034	(-0.048)	1	1.139	-0.001
자살충동3→자살충동4	0.412	(0.397) ***	0.431	(0.478) ***	1	0.203	-0.001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12	19.742	-0.006

주: 1) \* p<0.05, \*\* p<0.01, \*\*\* p<0.001

2) 남녀 집단별 모수 추정치는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결과이고,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결과임.

<그림 4> 교사지지와 자살충동의 요인적재치와



주: 1) \* p<0.05, \*\* p<0.01,

2) 나타낸 수치는 남성집단의 표준화된 계수이며, 남녀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경로계수에만 여성 집단 수치를 괄호에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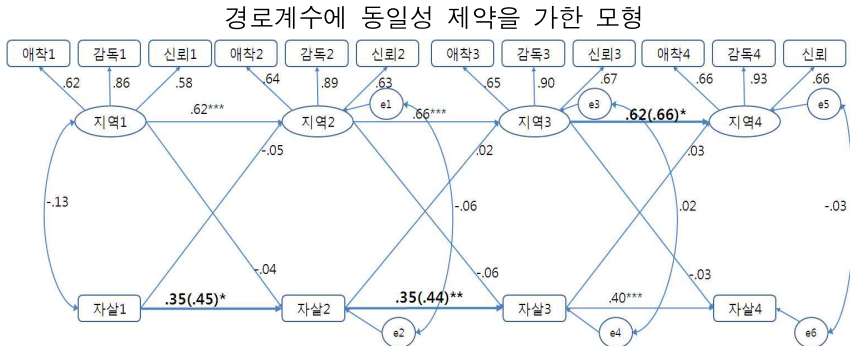
<표 7> 지역사회 지지와 자살충동 모형의 남녀 모수 추정치와 집단간 차이

경로	모수 추정치(표준화 계수)		집단간 차이		
	남	여	$\Delta df$	$\Delta \chi^2$	$\Delta TI$
지역지지1-자살충동2	-0.034 (-0.039)	-0.026 (-0.025)	1	0.035	0.851
지역지지1-지역지지2	0.617 ( 0.619) ***	0.647 ( 0.649) ***	1	0.292	0.589
자살충동1-지역지지2	-0.050 (-0.046)	-0.052 (-0.056)	1	0.003	0.958
자살충동1-자살충동2	0.337 ( 0.348) ***	0.430 ( 0.450) ***	1	4.919 *	0.027
지역지지2-자살충동3	-0.052 (-0.063)	-0.029 (-0.028)	1	0.250	0.617
지역지지2-지역지지3	0.685 ( 0.661) ***	0.702 ( 0.696) ***	1	0.093	0.761
자살충동2-지역지지3	0.017 ( 0.015)	-0.011 (-0.011)	1	0.362	0.547
자살충동2-자살충동3	0.326 ( 0.354) ***	0.452 ( 0.441) ***	1	8.894 **	0.003
지역지지3-자살충동4	-0.027 (-0.033)	-0.048 (-0.051)	1	0.268	0.605
지역지지3-지역지지4	0.643 ( 0.623) ***	0.753 ( 0.660) ***	1	4.195 *	0.041
자살충동3-지역지지4	0.035 ( 0.027)	0.058 ( 0.053)	1	0.206	0.650
자살충동3-자살충동4	0.414 ( 0.399) ***	0.427 ( 0.474) ***	1	0.089	0.765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12	19.298	0.082

주: 1) \* p<0.05, \*\* p<0.01, \*\*\* p<0.001

2) 남녀 집단별 모수 추정치는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결과이고,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결과임.

<그림 5> 지역사회 지지와 자살충동의 요인적재치와



주: 1) \* p<0.05, \*\* p<0.01,

2) 나타낸 수치는 남성집단의 표준화된 계수이며, 남녀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경로계수에만 여성 집단 수치를 괄호에 기입.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살충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요인들의 변화와 함께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첫째, 부

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 지지와 자살충동 간 인과적 방향성은 어떠한지와 둘째, 이러한 인과관계는 성별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먼저 전년도( $t-1$ )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 자살충동 수준이 높을수록 모두 다음 해( $t$ )의 같은 요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요인간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지원과 자살충동간 관계를 봤을 때 자살충동과 유의한 경로를 나타낸 것은 부모지지, 친구지지였다.

지지원별 시기에 따른 성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지지와 관련하여 남녀 청소년 집단이 유의한 성별 차이를 보인 경로는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부모지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자살충동으로 가는 경로였다. 여자청소년 집단에서는 이 경로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남자청소년 집단에서는 이 시기의 경로는 그렇지 않았다.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고재홍·윤경란(2007)의 연구와 가족환경체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힌 박병금(2006)의 연구 등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대한 부모지지의 영향력을 밝힌 많은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부모지지 변수는 남녀 청소년 모두의 자살충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단 자살충동에 대한 부모지지의 성별 차이는 홍나미·정영순(1999)의 연구에서 가족지지의 영향력이 여자 청소년에게만 유의하게 작용했음을 밝힌 결과와 일치하지만 박병금(2006)의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가족환경체계의 더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일반계 또는 전문계 고등학교로의 일차적 진로 분화가 일어나는 분기점으로, 이 때 학교성적에 의한 강제적 진로결정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이와 같은 결정 시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고 밝힌 김병숙(2005)의 연구결과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의 부모지지에 따른 자살충동 감소를 뒷받침할 수 있다.

둘째, 친구지지와 관련하여 남녀 청소년 집단의 유의한 성별 차이는 부모지지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친구지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살충동으로 가는 경로로 확인되었다.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남녀 청소년 집단을 비교했을 때 여자청소년 집단에서 그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음을 밝힌 선행연구들(배재현·최보가, 2001; 안수영·이형실,

2009)과 일치하는 결과로,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친구관계에 있어 친밀한 대화를 더 많이 하고 관계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구지지가 남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에 다양한 결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홍나미·정영순, 1999; 홍영수, 2005; 박병금, 2006; 고재홍·윤경란, 2007; 정영주·정영숙, 2007).

셋째, 교사지지와 지역사회 지지는 각 시점의 청소년 자살충동과의 유의한 교차경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체영·김판희(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교사지지는 대부분 연구에서 학교환경변수에 포함되어 개인 내적 요인, 즉 자아존중감, 우울, 스트레스, 애착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어왔기 때문에(홍나미·정영순, 1999; 김희수·윤은중, 2004; 박병금, 2006) 이러한 개인 내적 요인과 자살충동과의 관계에서 교사지지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추론을 할 수는 있으나, 교사지지와 자살충동간 직접적 관계를 설정하고 분석하는 많은 시도를 통해 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지지와 청소년 자살충동간 관계 또한 유의한 경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의 신뢰수준, 사회응집력이 주민들의 다양한 사망원인들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Drukker and Os, 2003; Wilkinson, 1998; Kawachi et al., 1996)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현대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 약화로 인해 상호작용이 적어지고, 이에 따라 유대감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구성원간 공유되는 통제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Bursik and Grasmick, 1993; Silver and Miller, 2004)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 대한 관심 또한 감소되는 등 이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사회통제를 위한 기대감, 즉 비공식적 통제력(informal social control)을 일컫는 집합적 효용성(collective efficacy)이 지역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Sampson et al., 1997; Sampson and Raudenbush, 1999; Morenoff et al., 2001; Gibson et al., 2002) 지역사회의 맥락적 효과가 개인의 문제를 설명할 때 그 분석단위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 자살 관련 연구들은 이와 같이 그 초점을 확대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와 청소년 자살간 관련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서혜석, 2006)를 토대로 직접적 효과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원 역할을 하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각 시점에서의 자살충동이 지속적인 인과관계를 보인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자살충동 문항의 전체 평균은 감소하는 경향<sup>5)</sup>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살충동 수준을 보였던 대상은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자살충동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변동이 거의 없이 지속적인 위험을 내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모지지와 친구지지 등의 요인이 자살충동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자살충동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됨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초기 예방적 차원의 자살충동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지지원의 개입을 보다 증진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충동이라는 내적 역동에 대해 심리·정신 분석학적 모델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닌, 주변인과의 관계, 지지 등과 같은 개인 외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부모, 친구 지지와 자살충동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예방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다른 해와 달리 남학생 집단에서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부모지지는 자살충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다음 해의 부모지지는 자살충동에 대해 남녀집단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초기 자살충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성별에 따른 부모의 차별적인 지지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 지지와 친구지지 등 자살충동과 강한 관계를 나타낸 지지를 증재할 수 있는 지원 뿐 만 아니라, 약한 인과관계를 보였던 교사, 지역사회 지지를 강화시켜 청소년의 자살충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은정 (2005). “연령계층별 자살생각과 관련된 요인” 《보건복지포럼》 107:81-86.
- 곽경필 · 송창진 · 사공정규 · 이광현 (2004). “자살 위험요인의 평가와 예측” 《동

5) 자살충동의 전체 평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 결과는 패널데이터의 특성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도 탈락되는 응답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일 중도 탈락의 이유가 자살인 경우 자살충동 문항 평균값 감소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자살생각율과 시도율이 증가와 감소 추세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10-19세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뒷받침 될 수 있다.

국의학》 11:83-94.

고재홍·윤경란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자아탄력성의 완충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8(1):185-212.

김교현 (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6-68.

김병숙 (2005). “청소년의 진로의식 및 진로경로 분석”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551-571.

김순규 (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66-93.

김용분·정영조 (2003). “자살개념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2(4):394-401.

김은경·이정숙 (2008). “아동기 학대경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123-134.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향초 (1993). “청소년자살의 심리사회적 요인분석 및 예방대책 연구” 《청소년학연구》 1(1):167-181.

김현주 (2008). “청소년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제27호:69-92.

김희수·윤은중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애착안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40:93-115.

노혜련·김형태·이종익 (2005).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6(1):5-33.

문경숙 (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7(5):143-157.

문경숙·임규혁 (2007). “청소년의 자살충동 소멸, 생성, 지속 집단 간 정신건강 변인의 차이” 《교육심리학회》 21(3):665-683.

박광배·신민섭 (1991).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7-29.

박 경 (2005).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7):131-147.

\_\_\_\_\_ (2007). “여고생의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여성건강》 8(1):1-21.

박병금 (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 탐색”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399-403.

- 박영숙 (2009). “청소년 자살사고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우울, 부모관계, 친구관계 및 자살사고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3): 221-251.
- 박은옥 (2008).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8(3):465-473.
- 박재산·문재우 (2010).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27:105-131.
- 박현숙·구현영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완충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8(1):87-94.
- 배재현·최보가 (2001).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과 우정의 질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159-171.
- 서동우(2001). “자살에 의한 사망,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의 현황과 변화 추이” 《보건사회연구》 21(1):106-125.
- 서혜석 (2006).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인과모형” 《청소년학연구》 13:207-232.
- 아동·청소년백서 (2008). 서울:보건복지가족부.
- 안수영·이형실 (2009).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21(3):163-176.
- 엄태완 (2008). “청소년의 무망감 관련요인과 자살생각의 관계 : 사회적 지지의 효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5:211-237.
- 원호택·이민규 (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6(1):22-23.
- 우채영·박아청·정현희 (2010).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19-38.
- 우채영·김관희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인들 간의 다차원적 구조 분석” 《청소년학연구》 18(4):219-240.
- 유안진·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173-188.
- 윤우석 (2010). “청소년 지위비행과 부모의 양육행위에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18:175-202.
- 이경진 (2003). “청소년 자살의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진·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667-685.

이민아·김석호·박재현·심은정 (2010). “사회적 관계 내 자살경험과 가족이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2): 61-84.

이 숙 (2003). “청소년기 여고생의 자살위험성, 자이존중감 및 자아기능 강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2):153-163.

이종길 (2009).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 방안 연구” 《국민윤리연구》 72:299-333.

이지연·김효창·현명호 (2005).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 자살 생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0(4): 375-394.

임성택·주동범·이금주 (2010).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직업교육학회》 29(1):23-43

장일순 (2004). “한국사회의 자살증가의 원인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2:263-282.

전영주 (2001). “우울증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환경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39(1):151-167.

전영주·이숙현 (2000). “청소년의 자살 구상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7(1):221-246.

정기원·권량희 (2006). “부모 및 교사 애착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일반긴장이론의 실증 분석” 《청소년학연구》 10(1):249-275.

정영주·정영숙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 지지 간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0(1):67-88.

정혜경·안옥희·김경희 (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2):107-126.

조아미·방희정 (2003).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5):81-102.

조은정 (2008).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교사, 친구 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5(6):299-321.

질병관리본부 (2009). 2009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결과.

최원기 (2004). “청소년 자살의 사회구조적 원인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8호:5-30.

통계청 (2008). 15세 이상 인구의 자살에 대한 충동 및 이유.

하상훈 (2000). “청소년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자살예방협회 보도자료 (2010). “추적, 극단의 선택 자살. 언어·행동서 이상 징후 보이면”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청소년 자살의 원인 및 예방정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종혜 (1995).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129-141.
- 한종혜·박성욱·이영환 (1997).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가치감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6(1):15-27.
- 홍나미·정영순 (1999). “청소년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449-473.
- 홍성철·김문두·이상이 (2003). “사회계층이 자살 사망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4:249-271.
- 홍영수 (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원의 완충효과” 《임상사회사업연구》 2(1):249-272.
- Adam, K. S., Keller, A., West, M., Larose, S. and Goszer, L. B. (1994). “Parental representation in suicidal adolescents : A controlled stud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8:418-425.
- Ayyash-Abdo, H. (2002). “Adolescent suicide: An Ecological Approach” *Psychology in the School* 39(4):459-475.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90-113.
- Beck, A T., Kovacs, M. and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Blum, R. W., Harmon, B., Harris, L., Bergeisen, L. and Resnick, M. D.(1992). “American Indian-Alaska Native youth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7:1637-1644.
- Borowsky, I. W., Resnick, M. D., Ireland, M. and Blum, R. W. (1999). “Suicide attempts among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youth: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3(6):573-580.
- Brent, D. A., Kalas, R. and Edelbrock, C. (1986). “Psychopath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suicidal ide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5: 666-673.

- Brown, S. L. and Vinokur, A. D. (2003). "The interplay among risk factors for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The role of depression, poor health, and loved one's messages of support and criticism"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131-141.
- Bursik, R. J. and Grasmick, H. J.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Lexington Books.
- Drukker, M. and J. Os. (2003). "Mediators of Neighborhood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Quality of Life." *Society of Psychiatry* 38: 689-706.
- Durkheim, E. (1987/2008). *에밀뒤르케임의 자살론*(황보종우 역). 경기도: 청아출판사.
- Fremouw, W. J., De Perczel, M. and Ellis, T. E. (1990). *Suicide risk assessment and response guidelines*. NY: Pergamon Press.
- Gibson, C. L. Zhao, J., Lovrich, N. P. and Gaffney, M. J. (2002). "Social Integration, Individual Perception of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n Three Cities" *Justice Quarterly* 19(3):537-565.
- Hagquist C. (1998). "Youth unemployment, economic deprivation and suicide" *Scand J Soc Welfare* 7:330-339.
- Harlow, L. L., Newcomb, M. D. and Bentler, P. M. (1986).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5-21.
- Heisel, M J., Flett, G. L. and Hewitt, P. L. (2003). "Social hopelessness and college student suicide ideation"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7(3):221-234.
- Hollis, C. (1996). "Depression, family environment,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5):622-630.
- Kawachi, I., Kennedy, B. P. and Prothrow-Stith, D. (1996). "Income Distribution and Mortality: Cross-Sectional Ecological Study of the Robin Hood Index in the United States." *British Medical Journal* 312: 1004-1007.
- Kieselbach, T. (1988). "Youth unemployment and health effec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34(2):83-96.
- Morenoff, J. D., Sampson, R. J. and Raudenbush, S. W. (2001). "Neighborhood Inequality, Collective Efficac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Urban Violence" *Criminology* 39(2):517-533.

- Perkins, D. and Hartless, G. (2002). "An Ecological Risk-Factor Examination of Suicide Ideation Behavior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s Research* 17(1):3-27.
- Pfeffer, C. R., Conte, H. R. and Plutchik, R. (1993). "Suicidal behavior in latency-age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8:679-692.
- Sampson, R. J., Raudenbush, S. W. and Earl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27:918-923.
- Sampson, R. J. and Raudenbush, S. W. (1999). "System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603-651.
- Silver, E. and Miller, L. L. (2004). "Sources of Informal Social Control in Chicago Neighborhoods" *Criminology* 42(3):551-584.
- Smith, K. and Crawford, S. (1986). "Suicidal behavior among 'normal' high school students" *Suicide Life Threat Behavior* 16:313-325.
- Sudak, H. S., Ford, A. B. and Rushforth, N. B. (1984). *Suicide in the young*(Eds.), J. Wright : Boston.
- Wilkinson, Richard G. (1998). "Income Inequality and Population Healt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7: 411-412.

[2011. 5. 27 접수 | 2011. 6. 29 심사(수정) | 2011. 7. 1 채택]

## A Causal Analysis of Suicidal Impulse in the Context of Parents, Friends, Teachers and Community Support: Gender Difference

*Hyunju Kim · Jaeun Roh*

Given the 4 contexts-parents, friends, teachers and community- of adolescents, this research verified the casual relationships between each contextual support and the suicidal impulse, and the gender difference. The 4-year longitudinal data(KYPS) collected from 3,697 adolescents were used in this study. Us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the suicidal impulse was consistently present from the 3rd grade in middle school to the 3rd grade in high school with significant stability.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ed in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 among the 3rd grade in middle school. Also the negative effect of friends' support on the suicidal impulse among the first grade high school students. The effects were more stronger for girls than boys. Previous supports by teachers and community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later suicidal impul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tudy of suicidal impulse needs to examine the complex support system of multiple context layers.

**Keywords :** Suicidal impulse, Contexts of adolescent, Supports of contexts,  
Auto-regressive lagged model